



박태원 교수의

불교를 보는 인생

가르치는 입장에 선 지 벌써 6년째로 접어들다. 강사 생활을 합하면 10년도 훨씬 넘는 교육 경력이지만, 책임 있는 역할을 의식하고 교육에 임한 것은 울산대 철학과에 소속되고부터이니 그렇게 된다. 해마다 이맘때면 제자들의 소중한 정성이 새삼 안겨온다. 그 정성 받아내는 내 표정이 이제는 제법 능숙하다는 생각이 들어 웃음을 흘린다. 나는 교육의 길을 얼마나 제대로 걷고 있는 것일까.

대학원 박사 과정 시절, 처음 강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의 설렘이 아직도 생생하다.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 듯 하여 그 의욕과 임이 학기 내내 나를 흥분시켰었다.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지만 한 실의 지식들에 의욕 하나로 열정을 쏟았다. 적어도 그 순수한 열정만은 전달되었던 것 같다. 학기말 시험답안지와 리포트에는 고무적인 추신들이 적혀 있었다. 자기 도취에 젖어 열악한 대학강사의 현실은 조금도 의식되지 않았다. 인생에 대한

바래기 마련이다. 교육 매너리즘의 원천은 교육의 연기적 실상에 대한 무지와 착각에 있었다.

6년 전, 소속감과 책임감이 선행해진 입장이 되어 새롭게 시작할 때, 어떤 교육자가 될 것인지를 놓고 생각해 잠겼다. 나의 학생 경험을 반추해 보니 흥미로운 사실이 포착되었다. 성숙의 큰 은혜를 배워 주신 스승들은 한결 같이 제도권 밖에서 만났다. 제도 교육이 제공한 스승 인연들도 분명 지금의 나를 있게 한 은혜이며 훌륭한 스승들이었지만, 마음 깊이 각인되고 존재를 뒤늦게 은사 인연들은 제도권 교단 밖에서 볼 수 있었다.

제도권 교단 인연들은 한결같이 나와는 다른 특별한 인간으로 보였다. 항상 저 높은 곳에 올라서서 미숙한 나를 내려다보는 다른 세계 사람들로 여겨져 감히 진솔한 인간적 대화를 시도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러나 영성의 스승, 그 분들에게서는 그런 벽이 없었다. 나이의 고하를 떠나 언제나 같은 인간으로 만

언행 살피고 죄 참회하는 수행



참불자의 길 자자·포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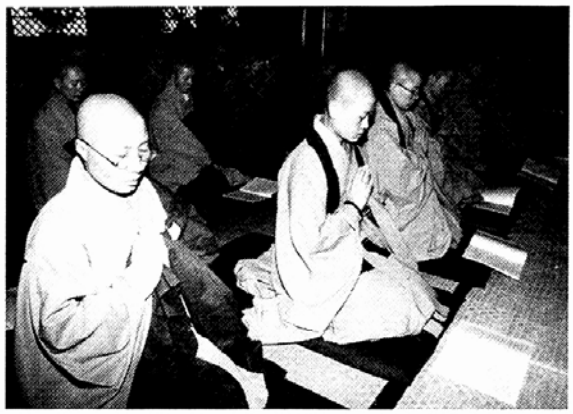
일정한 날을 정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죄가 있으면 고백 참회하는 의식인 자자(自恣)와 포살(佈薩).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갈등과 불화가 많은 현대인들에게 자자와 포살은 더없이 필요한, 자기를 점검하는 수행법이다. <대지도론> 제 13권을 보면 '성심(誠心)으로 참회해 몸과 입, 마음을 청정히 하며 팔계(八戒)를 받아 행하는 것을 포살이라 한다. 재가 신도가 육재일(六齋日)에 팔계(八戒)를 받아 지니는 것을 포살이라 한다'고 해, 재가 신도가 한달에 6일 동안만이라도 팔계(八戒)를 지키면서 자신을 돌

아보고 깨끗한 마음으로 청정하게 살 것을 가르치고 있다. 자신의 언행을 돌아볼 겨를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일반인들이 포살법회에 참여하거나 주재하면 일상은 물론 수행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포살법회를 하고 주재하는 수행자들의 조언이다.

조계사 재무 원명 스님은 "승속(僧俗)을 막론하고 살아가면서 부처님전에 반성하고 참회할 일은 수없이 많이 생긴다"며 "일정한 날을 정해 자신의 행동과 언행을 살피는 참회의 의식은 건강한 수행생활을 하는데 필수적인 수행방편"이라고 포살법회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스님은 또 "포살법회는 사찰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도 손쉽게 열 수 있다"며 "일정한 날을 정해 가족 구성원간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허물없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다면 살 것을 가르치고 있다. 자신의 언행을 돌아볼 겨를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일반인들이 포살법회에 참여하거나 주재하면 일상은 물론 수행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포살법회를 하고 주재하는 수행자들의 조언이다.

포살을 하는 방법은 원래 포살당이나 혹은 도량 등 일정한 장소에 모여 계율에 능한 스님이 250계(戒)의 조문집인 <바라제목차(波羅提



한달에 두번씩 모여 자신의 생활을 반성하는 포살법회 사진은 조계사에서 열린 포살법회 모습.

지속적 자기점검 가능 가족 포살법회 바람직

목(木)의 한 조목을 3번씩 읽으면 계율을 어긴 자가 다른 스님들에게 고백 참회하는 것이다. 하지만 요즘에는 일반 사찰에서 주로 음력 보름에 포살 법회를 열어 참여하는 재가불자들이 수제반을 때 서약했던 오계(五戒)를 독송하고 자신의 수행생활을 점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표 참조>.

인자가 끝날 때 치르는 의식인 자자는 스님들이 각자 스스로 안겨 기간중에 자신에게 범계(犯戒)의 허물이 있었다면 무엇이든지 지적해 달라고 동료 스님들에게 청하는 의식이다. 자자 의식의 진행은 차례가 된 사람이 대중 앞에 합장하고 나서 "여러분, 저의 행위와 언어에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때 만약 지적할 것이 있으면 지적해 주고, 지적할 것이 없으면 대중은 가만히 있으면 된다. 도반들 간에 허물을 서로 지적해 주고, 지적받은 사람은 그것을 고백하고 참회함으로써 승가 분단의 청정성을 유지하는데 근본 목적을 두고 있다. 자자 의식은 목련존자가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자자의 날에 청정한 대중을 공양함으로써 그 공덕으로 지옥에 빠진 어머니를 구했다는 목련구모의 설화에서 알 수 있듯이 초기불교 시대부터 확실히 이행되고 있는 수행법이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a.com

'교육의 길' 제대로 가고있나

철학적 해안들과 나의 생각을 마음껏 털어놓을 수 있었다는 사실에 실로 황홀하였다. 그 첫 학기의 열정은 초발심의 순수하고 의욕을 가득 담고 있었다.

초발심의 순수는 오래 지속되기 어려운 법이다. 다음 학기부터 벌써 매너리즘의 악취가 슬슬 풍기기 시작했다. 과도한 열정 뒤의 허탈 비슷한 무력감도 느꼈다. 어느 날 무엇이 문제인지 알았다. 교육은 독백이 아닌 대화, 학생이 선생을 있게 하고 선생이 학생을 세우는 연기(緣起) 속에서, 선생과 학생은 상대 존재를 가능케 하며 끊임없이 상호 작용을 주고받는다. 학생은 선생에게서 눈을 띄우고 선생 역시 학생을 통해 자신을 보며 또 배운다. 교육 현장은 그렇게 관계의 한 몸이다. 그러나 나는 지나치게 나에게 몰두하고 있었다. 강의의 주역은 당연히 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나에게 학생들은 나의 모노드라마와 독백을 보며 감동의 갈채를 보내야 할 관객으로 밀려나 있었다. 반복되는 일인정 연극에다가 신선한 열정을 계속 퍼붓기란 어려운 법. 그런 모노드라마의 순수와 열정은 첫 회 공연으로

교육 독백 아닌 대화 선생과 학생 '길동무'

날 수 있었다. 함께 걸으며 도란도란 삶 이야기하는 길동무로 느껴졌다. 자연스러운 권위가 그래서 빛났고 깊이 존경할 수 있었다. 제도권 사제 관계는 자칫 권력 질서를 반영하곤 하지만, 그 분들에게서는 조금도 권력의 체취를 맡을 수 없었다. 인간, 나아가 생명이라는 보편성 앞에서 그 분들은 활짝 열려 있었다.

'인제나 인간으로 만나리라. 지식의 권력적 속성과 유혹을 떨쳐 버리라. 교조의 권좌를 외면해 버린 부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 보리라. 모든 권력적 총동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하는 불법의 공능을 교육 현장에서 검증해 보리라.'

교수 사회에 들어서며 이렇게 초발심을 다시 가다듬었다. 그러자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길동무로 다가오고 그들에게서 가르침이 솟아올랐다. 성실하지는 못했지만 그대로 방향은 제대로 잡은 것 같다.

울산대 철학과 교수



'서장' 통한 선 공부 ⑭

부추밀에 대한 답서(3)

선은 생사없는 청정심을 깨닫는 것

"편지에 말씀하시길, '초보자가 잠시 고요히 앉으니 공부가 저절로 좋아진다'고 하시고 또 말씀하시길 '감히 고요하다는 견해를 망녕되어 짓지 않는다'고 하시니, 이는 부처님의 '사람이 자기의 귀를 막고 크게 소리치면서 남이 듣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는 말씀처럼 스스로 장애를 만드는 일일뿐입니다. 만약 생사심(生死心)이 부수어지지 않으면 매 순간 순간이 어둡고 어리석어서 마치 아직 혼이 흩어지지 않은 시체와 같습니다. 그러니 다시 무슨 부질없는 공부를 하여 고요함을 이해하고 시끄러움을 이해하겠습니까? <열반경>에서 '공역(廣)이란 백경은 소 잡는 칼을 놓자 바로 깨달았다'고 하였는데, 그가 어찌 고요한 가운데서 공부를 해왔겠으며, 그가 어찌 초보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대가 이것을 본다면

분명 그런 것이 아니라고 여기고, 그는 옛 부처님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지 오늘날 사람은 이런 역량이 없다고 생각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면, 스스로의 뛰어난을 믿지 않고 기꺼이 자신을 못난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선종(禪宗)에서는 초보자나, 오래 공부한 사람이나를 따지지 않으며 또한 고창이나 선배를 귀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만약 참으로 고요함을 바라다면 반드시 생사심을 부수어야 합니다. 애써 공부하지 않아도 생사심만 부수지면 저절로 고요해집니다. 애 성현이 말씀하신 고요함이란 방편은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른 나무나 풀 같이 되어야 한다"는 등의 언급이 있다. 그러나 이런 말들은 모두 방편의 말이므로 문자 그대로 이해하여서는 안 된다. 이 방편의 말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여 고요하다고 여긴다면, 그것이 바로 경계를 따라 마음을 험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고요함과 시끄러움을 나누어 취사선택하는 분별심이기 때문이다. 번잡한 세간을 벗어나 조용한 곳에 고요한 것을 즐겨한다면 그것이 바로 선공부의 효과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대체로 이러한 잘못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고요하고 한가함의 즐거움에 빠져 그것을 탐닉하면서도, 스스로는 아무 견해도 갖지 않는다고 여긴다. 그러나 그들의 앞에 생

로병사(生老病死)나 흥망성쇠(興亡盛衰)라는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현실로 닥쳐오면, 그들의 고요함은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공부하지 않은 사람과 다를없는 고통을 당하고 만다. 그 까닭은 이들의 공부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다. 선이란 어떤 특정한 경계에 머물러서 그것을 즐겨 취하고 그와 다른 것은 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다. 선은 그렇게 사랑분별하고 취사선택하는 생사심의 실상(實相)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생사심이란 무엇인가? 삶과 죽음을 머물러 있는 마음이고, 삶과 죽음을 분별하는 마음이고,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마음이다. 이러한 마음 속에서 제 좋아하는 대로 따라다니는 것은 마음을 묶는 공부가 아니라 오히려 마음에 오염되는 것이다. 이런 식의 공부는 아무리 오래 하여도 집착만 키울 뿐이다. 실재로는 아무리 잡념이 많고 아무리 집착이 심한 마음이라 하더라도 마음 그 자체는 아무 잡념도 없고 아무 집착도 없는 마음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잡념이나 집착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들은 실재하는 것으로 되어서 번뇌를 만들어내지만, 마음의 실상을 알면 잡념이나 집착은 다만 마음의 움직임으로 나타나는 허깨비일 뿐이고 그저 늘 변함없이 깨끗한 마음일 뿐이다. 그러므로 선의 공부란 사랑분별하고 취사선택하는 생사심을 버리고 고요히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사심의 실상을 파악함으로써 생사심이 본래 생사(生死) 없는 청정심(淸淨心)임을 깨닫는 것이다.



김태완 부스대 강사·철학

2001년 대원불교대학 후학기(後學期)입학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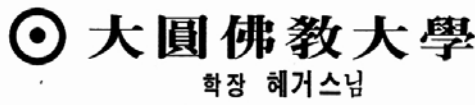
- 강의시간 8월 27일 개강 주 3일 출석, 야간수업
지도교수 최봉수(동국대), 장휘웅(동국대), 허경구(동국대), 김사업(동국대)
초빙교수 월운스님, 권기중(동국대), 정병조(동국대)
교육과목

Table with 2 columns: 학년 (1학년, 2학년) and 과목 (1학기, 2학기) listing various Buddhist studies courses.

모집 및 진영(2년제 야간 - 출강·통신과정)

Table with 4 columns: 모집과목 및 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전형방법. Lists admission details for various courses.

- 원서교부 및 접수 2001년 8월 17일까지(금) 본 대학 교무과
특전사항: 법사과정 이수 후 법사호 수여, 포교실습 지망자 법회처 제공, 포교당 종교법인 보호, 자원봉사자 장학혜택 부여,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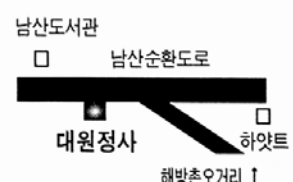
학장 허가스님 140-190 ·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TEL : (02)773-9171, 776-7156, 754-1613 FAX : (02)756-7258

팔리경장 한글 번역 불사 회원 모집



2,600년 전 고타마 붓다의 원음이 아름다운 우리말로 생생하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옵니다. 숯한 역사의 위기속에서도 존속해 온 소중한 팔리경장을 한글로 번역하는 10년 대 불사가 대중불교운동의 요람인 남산 대원정사에서 이루어집니다.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불교 바로 대중불교운동은 부처님의 원음인 팔리경장 번역으로 다시 시작됩니다. 우리 불자 모두는 신명을 다해 이번 불사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 회봉수교수
연찬회원(월 30,000원) 팔리 경장 연찬회에 참가하여 우리말로 옮겨진 팔리경장 근본 경전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다 체계적으로 배우실 수 있습니다.
구독회원(연 30,000원) 매달 또는 격월로 발행되는 팔리경장을 보내드립니다.
후원회원(경전 1권당 2,000원) 군부대, 병원, 학교에 팔리경장을 법보시 할 수 있습니다.
승금계좌(예금주, 한국불교대원회) 우체국 011791-01-000469 국민은행 098-01-0230-530
팔리 경장 연찬회 일시: 매주 월요일 11시 장소: 대원정사 (02-754-1613) 강사: 최봉수 교수



대원불교대학 전경



대중불교 운동의 실천



넉넉한 교육환경



불교전문 도서관 운영



30여 년의 전통과 2,000여 동문